

大韓建築士協會 第九回 定期總會 開催

10. 26. 建設會館 大講堂에서



建設部長官 致辭을 대독하는 太範植 주택관리관.



第九回 定期總會 光景.

本協會 第九回 定期總會가 지난 10月26日(土) 建設會館 大講堂에서, (午前 10時) 開催됐다.

全國 代議員 185名中 150名 出席裡에 開催된 이번 總會는 金載圭 建設部長官 致辭(대독 太範植 住宅管理官)에서 “國家發展에 있어 建築界가 차지하고 있는 責任은 莫中하다고 前提하고, 創立 當時에 비해 會員이 10倍以上 늘었으며, 組織 또한 強化된 것은 여러분 的 功勞의 代價”라고 叱하 했다.

한편 이날 總會에서는 執行部가 提出한 75年度 事業 計劃案과, 一般및 特別會計 予算案, 및 定款改正案等 을 原案대로 通過하는 한편 任期滿了된 金枝泰, 李春相, 吳雄錫, 세분 理事의 그동안의 業績을 叱하한후 新任 任員을 選出했는데, 이번에 새로 選出된 新任 理事는 成一永氏, (東進建築研究所. 代表) 朴成圭氏 (合成建築技術公社. 代表) 李興秀氏 (新一建築研究所. 代表) 의 세분이다.

한편 今年度로서 任期가 滿了된 尹希俊 監事는 다시 留任되었다. 그리고 이날의 定期總會에 서는 本會 事務處의 「部」를 「局」으로 그리고 支部 事務長을 事



務局長으로 그 名稱을 바꾸고, 支部長 제청에 따라 會長이 任命토록한 定款 改正案을 無修正 通過시키기도 했다.

始終 조용한 분위기 속에 進行된 이번 總會는 午後 5時40분에 閉會되었다.

브라질에서 보내어 온 韓昌鎭會長 메세지

기에 1211-45063 1974. 10. 25

수신 : 대한건축사협회

제목 : 메세지 통보

10. 26일 개최되는 귀협회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당부 주 브라질 대사와 귀협회 한창진 회장으로 부터 별첨과 같은 메세지를 통보해 온 바 전달합니다.

첨부 : 메세지 사본 2 통

외무부장관

외 무 부

번호 : BRW-1021

수신 : 장 관

발신 : 주 브라질 대사 송찬호.

10. 26 개최될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 대한 본직의 하기 메세지를 동 협회에 전달바람.

대한건축사협회 귀하

귀 협회의 총회에 즈음하여 이역만리에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며, 발전을 바랍니다. 여기 국제적인 무대에 한국을 심는 중대한 시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귀 협회장 한창진씨의 귀국을 만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국가적 견지에서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투와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끝.

尊敬하는 代議員 여러분!

第9回 定期總會를 開催함에 있어서 會長職을 맡고 있는 本人이 直接 參席하지 못하고 書信으로 여러분들께 人事를 드리게 된데 攄하여, 理由야 어떠한 간에 罪悚한 마음으로 우선 심심한 謝過를 드리고 여러분의 寬容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 8月末 故國을 떠날때에는 9月中에는 꼭 歸國하여 今番 總會를 準備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貴重한 大事를 치루고져 하였으나 本人이 關與하고 있는 부라질 駐在 韓國 大使館 新築關係일이 予定보다 지연되어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 없는 形便이오라 더 할 수 없는 非禮 인출 알면서도 여러분들께 이 글월을 올리는 바입니다.

然이나 이곳일이 제 자신에게는 한낱 個人的 私事로운 일에 不過하오나 한 使으로는 國家的인 事業임을 諒察하시와 本人이 이번 總會에 參席하지 못하데 攄하여 各별한 惠察있으시기를 거듭 仰願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代議員 여러분

여러분들과 자리를같이 하지도 못하는 處地에 무슨 건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우리 協會가 處해 있는 現時點의 重大性과 士法改正 推進 等 山積한 課題를 감안 하시와 지난 6月 第2回 臨時總會에서 보여 준 全國會員의 團結된 모습을 이번 定期總會에서도 다시한번 과시 하시어 附議된 諸案件을 處理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일 것은 士法改正問題이온바 이 問題는 全會員의 關心事 일 뿐 아니라 우리의 權益을 옹호하기 爲해서도 時急한 當面課題임으로 今年內에 꼭 實現 시키고져 그 間 行政 및 立法 關係當局者들 과의 不斷한 折衝과 더불어 改正해야 할 條項에 攄한 면밀한 研究作業을 進行하고 또 本人 不在中에도 여러 任員任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으나 時急한 他課題 處理에 攄한 關係當局의 事件으로 말미암아 年內 國會 상정이 어렵게 되었음을 못내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然이나 協會로서는 지난 八月 開催되었든 支部長회의 方向에 따른 士法改正案을 마련하여 建設部에 正式 改正建議案을 提出하고 明年度에는 기필코 實現 되도록 全力投球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 하심을 仰祝하옵고 本人의 安否를 全國會員들께 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974年 10月 부라질리아에서 會長 韓昌鎭 謹拜

致 辭

建設部長官 金 載 圭

來賓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第9回 定期總會에 즈음하여 本職이 所信의 一端을 披歷할 機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職이 위의 命에 따라 建設部로 자리를 옮긴 후 關係官들의 報告에 依하여 우리나라 建築 實務界에서는 貴協會가 唯一한 団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建築士協會가 建築界에서 차지하고 있는 位置는 莫重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여 할일이 많고 國家에 對한 責任, 社會에 對한 責任이 크다는 뜻인 것 입니다.

貴協會가 創立된지도 거의 한 世代가 되었습니다. 創立 當時에 比하여 會員이 10倍以上 늘었고 組織이 열배 以上으로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간 여러분의 功勞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點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世界는 各己 自己國家利益 追求를 위한 激甚한 小용들이 속에서 서로가 自己의 活路打開을 위하여 政治, 經濟, 社會 等 모든 分野에 걸쳐 그 整備와 改革을 통한 現實克服等을 競爭의 遂行하고 있습니다.

今年 「노벨」 經濟學賞을 受賞한바 있는 「군나르 뤼르달」 教授는 「유엔」 世界開發 會議에서 開發途上國家의 變革을 통한 自活策을 促求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開發途上國家들이 오늘의 難局에서 脫皮하려면 先進國들이 政治的 計算에서 提供하는 經濟援助로서는 不可能한 것임을 強調한 바 있습니다. 即 그들이 말하는 先進國開發 理論의 機械的 算術的인 適用을 拒否하고 開發途上國家들의 開發理論은 그 國家의 固有한 社會文化風土에 適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結論짓기를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難局克服은 그 國家의 支配 「에리트」 들의 自覺을 前提로 社會改革을 爲한 土地改革 教育改革 그리고 脫稅, 不正腐敗의 根絶없이 는 不可能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大統領閣下께서 10月 維新을 斷行하신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國民, 特히 知性人에게 自覺을 促求하시고 우리 社會 文化風土에 알맞는 政治體制를 確立하자. 社會氣風을 刷新하자. 脫稅, 不正, 腐敗等 모든 社會不條理를 없애고 國民이 團結하여 總和로 難局을 克服하자는 것이 바로 維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決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國民 모두가 自覺하고 꾸준한 努力으로서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먼저 말한바와 같이 오늘의 協會가 되기까지 많은 努力을 하신 것을 잘 압니다.

其間 國家社會에 이바지 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開發途上에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國家가 그리고 社會가 이를 여러분에게 期待하고 또 不斷히 要求하고 있는 것입니다.

憤怒를 우리는 日帝下에서 體驗하였습니다. 社會에서 孤立된 나의 뼈저린 아픔을 北傀의 蠻行으로 저질러지고 民族의 慘劇이었던 6.25에서 우리는 經驗하였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國家없는 “나” 社會에서 孤立된 “나” 가 될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悲劇과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의 後孫들에게 決코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世界의 나라들은 다 各己 自己나라의 利益을 爲하여서 모든 方法을 講究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地球上에서는 그 類例를 볼수 없는 極惡無道한 北傀는 民族의 良心도 꺼버린 채 우리의 平和統一에 對한 愛타는 呼訴도 外面한 채 平和와 自由를 짓밟고 反民族의 兇魔手를 틈만 있으면 뺨치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自覺합시다. 그리고 總和로서 難局을 克服합시다. 그리하여 굳건한 國家 安保를 다지고 明朗한 社會를 이룩하는데 加一層 邁進합시다.

끝으로 貴協會의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各家庭에 繁榮과 幸福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建築物의 防災에 對한 建議書

最近 頻發하는 高層建築物의 火災는 建築物의 防災에 對한 根源的인 對策을 促求하고 있어 政府에서도 關係法令의 改正補完等 多角的인 方案을 講求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當協會로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法制面에서 또는 行政施策面에서 改善되어야 할 先決課題라고 思料하와 建議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建築主等에 對한 啓蒙強化

建築物의 建築에는 建築法, 消防法, 都市計劃法, 建築士法等 많은 關聯法規의 適用을 받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많은 建築主들은 아직도 上記한 바와 같은 關聯法規의 內容을 거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可及的 低廉한 技資로 보다 더 큰 建築物을 建造하려는 危險한 思考方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所謂 날림 建築物을 짓기가 일수여서 火災發生 및 그 被害擴大의 큰 要因이 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 ① 工事監理忌避
- ② 不實施工(不良建材의 使用, 防災設備의 未備等)
- ③ 竣工後 任意用途變更
- ④ 建築物의 管理疎忽

以上과 같은 點을 勘案할때 建築主들에 對한 關聯法規의 宣傳啓蒙과 아울러 適切한 技資와 關聯法規의 遵守만이 所望하는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途徑이라는 點을 認識시키도록 不斷한 啓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工事監理에 關한 細部規程 制定促求

現行法上 工事監理는 150~300 平方米 - 터 範圍內에서 市長, 郡守가 따로 定하는(現在 全國的으로 150 平方米 - 터以上을 적용하고 있음)

以上의 建築物 또는 높이 13미터 以上이거나 처마높이가 9미터 以上인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建築主는 義務的으로 工事監理者를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工事監理者를 定하지 아니한 建築主와 工事監理者가 定하여지지 않았음에도 施工한 者는 6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한편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遂行함에 있어 建築法에 違反된 事項을 發見하였을時는 이를 是正하도록 建築主와 施工者에게 勸告하고 이에 不応할 時에는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長, 郡守에게 報告하도록 規定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虛偽로 報告하였을 때에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적은 投資로 建築을 하고져 하거나 違法을 恣行코져 하는 建築主는 建築主가 監理者를 定하도록 한 義務規定에 따라 許可申請書에 設計者를 監理者로 定해만 놓고 工事監理費를 하나의 不必要한 附帶費用으로 生覺하는 建築主들은 正當한 監理보수를 支払하지 아니하거나 그나마 僅小額을 支払하는 等 事實上 工事監理를 忌避하는 事例가 許多한 實情인데 工事監理는 法으로 規定된 建築士의 義務規定이면서도 工事監理業務를 遂行하는데에 따르는 建築士의 權限이 法으로 保障되어 있지 않아 建築士는 莫重한 責任만 지는 不公平한 處地에 있어 工事監理業務의 徹低한 遂行이 어려운 現實임을 勘案할때 建築士에게 工事監理에 따르는 權限을 賦與하고 工事監理費의 適期支払等을 明文化하는 細部規程을 時急히 制定하여야만 違法 및 不實建築을 防止하여 建築物의 防災에 큰 實効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不燃資材의 早速한 指定과 檢査制實施

建築法 25條 및 同施行令 91條에서는 防火上 必要한 資材等은 不燃材 및 準不燃材를 使用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建設部長官이 定하도록 되어 있는 檢定基準이 制定되어 있지 않아 建築示方書에 明示하여야 할 內裝材等의 資材選擇에 混線을 빚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므로 當局에서는 檢定基準을 早速히 制定하는 同時 不燃材 및 準不燃材에 對한 細部的인 品目指定으로 建築主나 設計 및 施工者가 손쉽게 資材를 選擇 使用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措置와 아울러 品目指定된 不燃材 및 準不燃材의 品質檢査制를 實施하여 品質保障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며 檢査機構設置에 있어서 建築士協會등에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주시는 것이 適切하다고 判斷됩니다.

4. 火災에 關한 諸般資料 提供

隣國 日本만해도 出火 및 被害狀況等에 對한 科學的인 資料를 수집하기 爲하여 多角的인 試驗을 實施하고 (낡은 집을 政府에서 買入하여 불태우는등) 그 結果를 專門家들에게 提供, 研究토록 하고 있는데 反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큰 火災가 發生하면 專門家의 現場調査조차 막는 境遇가 許多할 뿐 아니라 火災에 關한 諸資料를 專門家들에게조차 提供하지 않아 建築物의 防災研究에 相當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큰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即刻 專門家들로 構成된 現場調査를 實施하고 이에서 얻어진 諸資料는 建築士等 專門家들에게 提報하여 研究할 수 있도록 이를 制度化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思料합니다.

5. 建築許可行政의 合理的인 調整促求

(1) 現行建築許可行政節次에 依하면 許可官庁公務員이 垜地, 道路, 높이 제한, 건폐율, 인접地와의 關係, 用途, 構造設備등, 複雜多岐한 諸般事項을 檢討하고 現場을 確認한 後 適否를 가려 許可與否를 決定하고 着工, 中間檢査, 竣工檢査를 거쳐 竣工檢査証을 發付하고 있어 高度의 專門知識을 가진 訓練된 많은 人員을 必要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人員을 必要로 하고 방대한 業務量임에 反하여 現實情을 볼때 建築許可 担当公務員의 大幅 不足등으로 建築許可行政上 큰 問題點이 惹起되고 있습니다.

(2) 例를 들어 서울市の 現況을 보면 現在 서울市の 建築許可行政担当 公務員 數는(本庁, 各區庁 및 出張所 合計)約200名에 不過하여 專門家인 建築士가 많은 補助員의 助力을 받아 數個月式걸려 著作한 設計圖面을 면밀히 檢討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形便일 뿐만 아니라 서울市の 年間 建築許可件數는 4萬件을 上廻하고 있어 建築許可担当公務員 一人당 担当件數가 年間 200件에 達하는바 이는 公休日等을 빼면 한사람이 1日平均 1件式을 處理하여야 하는 방대한 業務量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打開하기 爲하여서는 建築許可行政担当公務員의 大幅 增員과 有資格者와의 代替가 要請되으나 政府의 予算形便上 大幅 增員이 어려울 것으로 思料될 뿐만 아니라 有資格者 代替 또한 容易한 일이 아님으로 建築許可行政의 合理的인 調整이 適切하다고 思料되는바 그 方案으로서 다음과 같은 措置가 妥當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建築法上 建築物의 規制는 建築物의 垜地 構造 設備等을 規定한 個體規定과 地域計劃等 都市 計劃面에서 規定한 集團規定으로 大別되고 있는바 現行建築許可行政에 있어서는 上記한 個體規定에 關한 事項과 集團規定에 關한 諸般事項을 許可官署에서 一一히 審査하고 現場調査까지 兼行하고 있어 行政處理上의 煩雜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한便 人員不足등으로 建築許可行政面에 瑕疵가 發生할 要因마저 內包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個體規定에 關한 事項과 現場調査는 建築士 責任下에 處理하고(建築士에게 一任) 許可官署에서는 集團規定에 關한 事項만을 체크하여 許可業務를 處理하되 一定規模以下의 建築物에 對하여는 建築士 責任下에 届出만으로 建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所望스럽다 하겠습니다.

6. 建築庁의 新設促求

建築에 關한 政策樹立, 建築法令의 制定과 施行 및 이에 따르는 補完作業 建築物에 關한 諸般統計業務, 建築士試驗 및 建築士의 管理, 建築行政의 指揮監督等 방대한고도 莫重한 業務를 管掌하고 있는 中央官署로서는 現在 建設部에 建築課가 있을 뿐이온데 上記한 바와 같은 방대한 業務量을 配置人員 10名未滿의 1個課에서 處理하기란 事實上 힘겨운 일임과 建築行政의 比重이 漸增하고 있는 趨勢를 勘案하여 建設部 傘下에 建築庁을 設置함이 妥當하다고 思料 됩니다.

1974. 11.

大韓 建築士協會 會長 韓昌鎭